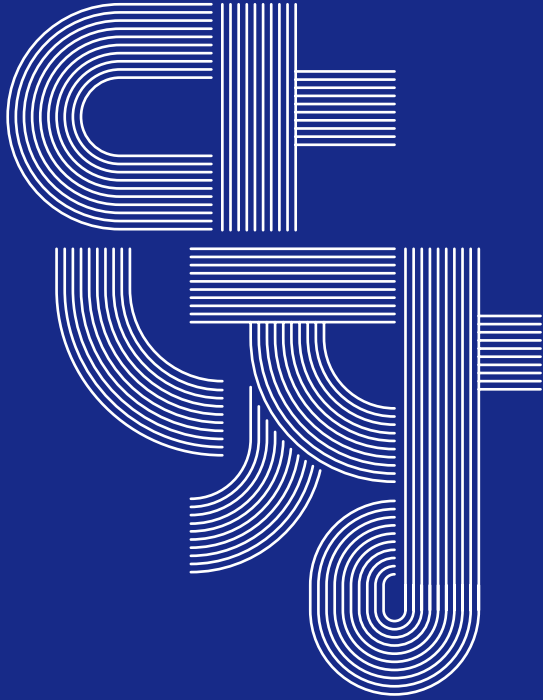


# 2022 젊은국악



평론가 초이스

# 2022 젊은국악



저 높이, 더 멀리 날개짓하는, 단장!  
전통, 그 무한한 세계로 걸어가는, 단장!

연희\*무용\*음악계의 저명한 평론가들이 선정한  
동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아티스트들을 만나볼 수 있는  
'2022 젊은국악 단장'

2022년 10월, 전통예술의 미래를 그리는  
8인의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열정으로  
붉게 물든 무대를 선사합니다.

10. 19(수) 19:30  
윤종강X김성현 이정동 정승하

10. 22(토) 19:30  
장승헌X김현선 이이슬 최종민

10. 26(수) 19:30  
김희선X김철진

10. 29(토) 19:30  
송현민X구이임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와 크라운해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뛰는 끈, 밟는 끈, 노는 끈 연희

탈춤의 지향점과 딱 맞는 3인이 등장했다.

2022 젊은국악 단장을 통해서, 이들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로 매우 다르기에 조화롭다 할 수 있다. 천지인(天地人)의 특성이  
3인의 연희춤 안에 다르게 살아있다.

2022년을 사는 평자(評者)로서, 젊은국악 단장의 무대에서  
연희를 펼칠 그들을 단 한글자로 표현한다면 이렇다.

이정동은 '힘'이 넘치고, 김성현은 '태'가 잡혔고, 정승하는 '끼'를 뿌린다.  
세 사람의 춤을 또 다르게 말한다면, 이정동은 '춤의 맛', 김성현은 '춤의 멋',  
정승하는 '춤의 흥'이 더욱 도드라진다.

윤종강\_음악평론가 | 제1회 서울국악축제 예술감독 | 중강국악상 위원장 | 전. 무형문화재 위원



## Program

뛰는 끈, 밟는 끈, 노는 끈은 이정동, 김성현, 정승하 연희꾼 3명이 모여 유연한 춤사위, 활발하고 강렬한 도무, 산 사람을 위한 기원무 등 개인의 개성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연희의 춤을 추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여 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춤사위를 통해 '탈춤의 훌춤화', '탈춤의 서사화', '탈춤의 그룹화'를 접할 수 있고, 젊은 명인의 길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 1 •

**양반춤**

김성현

• 2 •

**취발이춤**

이정동

• 3 •

**지전춤**

정승하

• 4 •

**문등복춤**

김성현

• 5 •

**바라춤**

정승하

• 6 •

**벽사진경의식무**

이정동

• 7 •

**무도풀이**

김성현·이정동·정승하

# 김성현



## 아티스트 소개

지(地)의 김성현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춤에선 땅을 밟는 동작이 안정적이다. ‘농민근성’이요, ‘촌놈근성’이다. 그의 춤사위는 때론 노동의 의식처럼 보인다. 마치 땅 밑에 숨어있는 물을 끌어 올려서 가뭄에 메마른 대지에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의식처럼 보이기도 하다. 무도(舞蹈) 김성현이다. 그의 춤은 누구의 춤보다 안정적이다. 그의 춤엔 땅에 대한 믿음이다. 김성현은 땅을 잘 밟을 줄 아는 연희꾼이며, 태가 잡힌 춤사위로 춤의 맛을 낼 줄 아는 연희꾼이다.

# 이정동



## 아티스트 소개

천(天)의 이정동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춤에선 하늘로 솟구치려는 의지가 보인다. ‘한량근성’이다. 이정동의 춤에는 도무(跳舞)가 무력적이다. 긴 한삼을 허공을 향해 뿌리고, 하늘 향해 높이 뛰는 그의 춤에선, 원시사회 본연의 남성성(男性性)이 솟구친다. 그의 취발이춤을 보면 현실을 억압을 벗어나서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살아난다. 무도(舞跳) 이정동이다. 탈춤을 가지고 하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예술가를 꿈꾸는 잘 땔줄 아는 연희꾼이다.



# 정승하



## 아티스트 소개

인(人)의 정승하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인간에게 전생이 있다면 정승하는 화랑(花郎, 화랭이)이 아니었을까? 신라의 화랑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모호한 초월자적 느낌이 강하다. 정승하가 바로 그렇다. 묘한 중성성(中性性)이 존재한다. '화랑(花郎) 기질' 정승하의 춤에는 무속적 '화랭이기질'이 농후하다. 무(巫)란 글자부터 하늘(天)과 땅(地)의 연결하는 존재가 아닌가? 무한(無限)한 천지에 사는 유한(有限)한 인간을 위해서 펼치는, 놀이적 굿판에 딱 어울리는 정승하! 무도(舞禱) 정승하이다. 그는 춤을 통해서 하늘에 기도할 줄 알고, 인간과 놀 줄 아는 연희꾼이다.



# 삼인 삼색의 창작춤 무용

평론가	윤중강
연희자	김성현, 이정동, 정승하
타악	김정기
타악	김경민
타악	최대량
대금·태평소	강병하
피리·태평소	김현승
아쟁	윤겸
무대감독	박영규
무대크루	유완형, 서원빈
조명디자인	이성현
조명 프로그래머	임지영
조명크루	정병훈
음향디자인	조경희
음향크루	유성식
담당PD	유예진 김혜경

한국춤의 전통과 창작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패기만만한 세 명의 아티스트가 모였다.  
전통춤의 아름다운 선과 깊이있는 디딤이 묻어나는 김현선.  
경계를 두지 않는 시도로 감각적인 무대를 만들어 가는 이이슬.  
한국춤을 기반으로 움직임의 춤추는 짜임새를 위트있게 풀어내는 최종인까지.  
다채로운 3인 3색 무용가들의 무대는, 각자의 삶의 고민과 독창적인 움직임을 통해  
신선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 Program

• 1 •

오라  
이이슬

사회의 단면에 뷰파인더를 대고 유심히 살펴보면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심코 지나쳐버린 장면 속에는 사건의 결과로써 죽음을 맞이한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병든 이야기가 웅송그리고 있다. '무엇이 그들을 그 장면으로 내몰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동시에 의문은 무대화되고, 철저히 추적되면서 전복된다. 그리고 애도하며, 반추한다. 작품 <오라>는 현실이 강제된 고통을 사유하는 과정을 통해 시대적 좌표를 제시하고 인간 존재성의 의미를 집요하게 모색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 2 •

잇(IT : connection)  
김현선

두 끝을 맞대어 붙인다는 연결을 뜻하면서 IT, 그것으로서의 객체를 뜻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호흡, 사위, 디딤 등의 동작과 그 동작들이 연결되어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그려낸다. 표면적으로는 움직임들의 '잇'을 나타내지만 내포된 의미는 시간, 공간, 사람, 자연, 우주의 연결이 담겨있다. 특히 무용수의 움직임과 피리연주자의 음악이 연결되어 반응하고 조화되는 과정을 그려내며 마치 일식 현상을 표현하기도 한다. 춤의 본질을 탐색하는 동시에 동작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고유의 움직임으로 개발되어 풀어 내었고, 그 속에 안무가가 겪은 삶의 희노애락과 의식이 녹여있다.

• 3 •

漁 고기잡을 어  
최종인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읽고 예술인들의 창작 및 공연 행위를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한 일들로 취급하는 이들이 보기엔 우리는 뱃놀이하는 한량으로 보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에서 작품은 출발한다. 이러한 자문에 소설 노인과 바다를 인용하여 자답한다. 잡은 고기를 상어에게 빼앗겨도 헛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기에 빈손으로 돌아와도 정신은 편만한 산티아고 노인처럼 인간은 파멸할 뿐 패배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뱃놀이는 꽃을 피우기 위해 경쟁사회의 태풍을 뚫고 나가는 치열한 뱃놀이라고.

# 이이슬



## 아티스트 소개

항구도시 부산에서 태어난 무용가 이이슬은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에서 한국춤을 학습 받은 이후 상경,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를 졸업했다. 한국춤의 컨템포러리화, 그 현재진행의 최전선에 선 이이슬은 <오라>를 통해 안무력과 탄탄한 춤의 내공을 검증받았고 2022 '한국무용제전'에서 영예의 최우수 안무상을 수상했다. 작은 체구의 단점에서 탈피할 만큼 반복적 연습과 춤에 대한 자신만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자신만의 춤 스타일을 구축하고 독보적인 캐릭터를 개발하며 그 에너지를 뽐어내는 안무가 이이슬이다.

# 김현선



## 아티스트 소개

대한민국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춤을 근간으로 다채로운 창작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춤의 빛깔을 찾아 나가고 있는 젊은 무용가 김현선은 어린 시절, 한국무용에 입문해 국립국악중고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전통과 창작춤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다양한 시도와 실험적인 작품 활동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 전통춤인 궁중정재와 수많은 민속춤 레퍼토리를 학습하며 우리춤의 깊은 호흡과 '느림의 미학'을 무대에서 소리 없이 강하게 표출해 내고 있다. '복미경무용단'의 수석 무용수로 국내, 외 무대에서 특유의 춤의 결을 빛내며 존재감을 드러내 관객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 최종인



## 아티스트 소개

한국무용을 전공한 독창적인 최종인이라는 남성 안무가가 우리 무용계에 마치 돌연변이처럼 등장했다.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상황을 오히려 예술가의 숙명처럼 안은 채 출범한 '플레이폴'이라는 신진 프로젝트 춤 그룹의 거침없는 질주와 향해는 2020년,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젊은 안무자창작공연' 경연에 <漁 고기잡을 어>는 이색적 제목의 20여분 작품으로 최우수 안무자상을 수상했다. 실로 오랜만에 들려온 한국무용 전공 남성 안무가 등장이었다. 독창적 실험정신과 유쾌한 감성을 빚어 낼 줄 아는 최종인 안무가이다.



# 전통예찬

## 김철진

기획자	장승헌
안무·출연	이이슬
드라마터그	장서현
해금·장구	이예찬
베이스	유영은
정주·뽕과리	이호행
보컬	김주현
무용수	라명숙
안무·출연	김현선
음악	김시울
의상	이현정 CHU DA costume house

안무·출연	최종인
무용수	김하윤, 황민하, 김소희, 박준엽, 김민섭, 김건우

무대감독	김성수
무대 크루	유완형, 윤진원, 서원빈
조명디자이너	이성현
조명프로그래머	임지영
조명크루	정병훈
음향디자이너	이진리
음향크루	박수진

담당PD	유예진 김혜경
------	---------

가야금은 가장 솔직한 악기이다. 가야금은 예민해서 연주자의 공력, 음악을 대하는 태도, 몸과 마음의 상태까지 다 드러내버린다. 현의 터치와 농현 하나 허투루 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다. 그래서 가야금에서 힘과 마음의 균형은 더욱 중요하다. 김철진은 힘과 균형에서, 거의 완벽을 구사하는 젊은 연주자로 그를 추천하기에 주저함은 없었다.

김철진은 어려서부터 가야금 산조와 꽤 어려운 현대창작곡 연주에 뛰어났다. 산조를 가장 잘 담은 가야금에 허튼가락을 담고, 스승에 대한 오마주를 담고, 화음 대신 음색을 담은 가야금 음악을 연주하는 김철진이다.

# Program

• 1 •

## 무巫:Mu

작곡 도널드 워맥(Donald Reid Womack)

‘무’라는 단어는 한국어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이 작품 제목은 한자어 巫와 관련된 무속신앙(샤머니즘)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 나아가 ‘무’는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며 어원을 살펴보았을 때 ‘춤’과도 관련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춤을 추는 듯한 부분, 그리고 곡이 끝날 때 수수께끼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사라지는 듯한 부분이 나타나는 등, ‘무’라는 단어와 관련된 이 의미들은 모두 이 곡에 내포되어 있다.

• 2 •

## 흩어진 가락

김철진, 추현탁, 장삼수, 박종찬이 수학한 네 개 유파의 가야금산조(강태홍류, 김병호류, 서공철류, 최옥삼류)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가야금 산조이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의 장단 틀에 각 유파의 가락들을 뽑아 구성하였다.

• 3 •

## 이말랑 전승 경주풍류

경주풍류는 최창로(1880~1966), 최윤(1886~1969) 등 많은 율객들에 의해 활발하게 전승된 향제줄풍류 중 하나이다. 경주풍류 중 가야금풍류는 상령산 전장과 중령산 일부, 세령산 이하 우조가락도드리까지 전하며, 양금풍류는 세령산 이하 우조가락도드리까지 전한다. 이번 공연에서 염불도드리·타령·군악을 양금과 함께 연주한다.

• 4 •

##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각 장단별 느낌을 살펴보면 진양조는 남성적인 깨끗함과 반면에 섬세하며 서정적이고, 중모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중중모리는 흥겨운 가락의 짜임새로 하여금 흥취를 돋운다. 자진모리는 밝고 경쾌하며, 휘모리는 가락 짜임새에 따라 풀고 맺는 긴장감이 어우러진다.





# 김철진



## 아티스트 소개

김철진은 초등학교 2학년때 가야금을 접한 이후 국립국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학창시절부터 가야금을 잘타는 학생으로 유명했던 김철진은 각종 대회에서 높은 성적으로 수상하며 미래 예인탄생을 예고했다. 그는 전통에 기반한 꾸준한 정진과 현대음악을 통한 테크닉과 해석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현대 가야금 연주사에 등장한 황병기-이재숙-이지영 등 엘리트 가야금 연주자를 잇는 차세대 대표주자이다. 전통에 대한 관심으로 류파별 가야금 산조에 이르기까지 산조에 대한 집요함의 깊이가 남다른 가야금 연주자 김철진이다.



# 집은 집이 아니다

## 구이임

음악학자	김희선
출연	김철진
가야금	추현탁, 장삼수
양금	신지희
장구	방지원
연출	이혜진
무대디자인	함채연
무대어시스턴트	민지원
조명디자인	이은송
영상	김동건
PM	한지윤
무대감독	박영규
무대크루	유완형, 서원빈
음향디자인	이서진
음향 크루	박채원
담당PD	유예진 김혜경

구이임의 음악을 틀어놓고 평소 읽고 싶던 김훈이 지은 '바다의 기별'이란 수필집을 읽어 내려갔다.

우리는 보통 글을 구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음악을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예술로 생각한다.

따라서 음악의 정보력이 글의 정보력만큼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이임의 음악이 환기시키는 바다의 풍광과 풍경은 글로 지어진  
김훈의 바다보다 더 구체적이고 섬세했다.

그들의 음악을 통해, 그 소리의 풍경 사이로, 바다의 소리가 들렸고,  
물의 냄새와 바람의 내음이 밀려왔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환기의 순간이었다.  
구이임의 음악을 서울남산국악당 <젊은국악 단장>을 통해 만나고 싶은 이유 하나.  
바로 이들의 음악은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환기시키고, 상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 Program

우리에게 '집'은 무엇인가.

house: 사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home: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외에 보편적인 인식 속에 '집'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와 의미가 부여된다. 그리고 '보편적인 집'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결여되면 우리는 결핍으로 느끼기도 한다. 그 결핍이 각자의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이 공연에서는 음악으로 그러한 점을 표현하고 형태로서의 집이 아닌 서로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줄 집을 찾아본다.

• 1 •

House o, Home ×

1.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철벽의 요새 / 하느님 부처님 천지님
2. 부유
3. 구석탱이
4. 무서운 시간
5. 꿈속의 아우성

• 2 •

House ×, Home ×

6. 십이난간
7. 나의 바다
8. 나빅
9. 돌을 던진 자 누구인가

• 3 •

House ×, Home o

10. 집은 집이 아니다
11.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12. 풍경





# 구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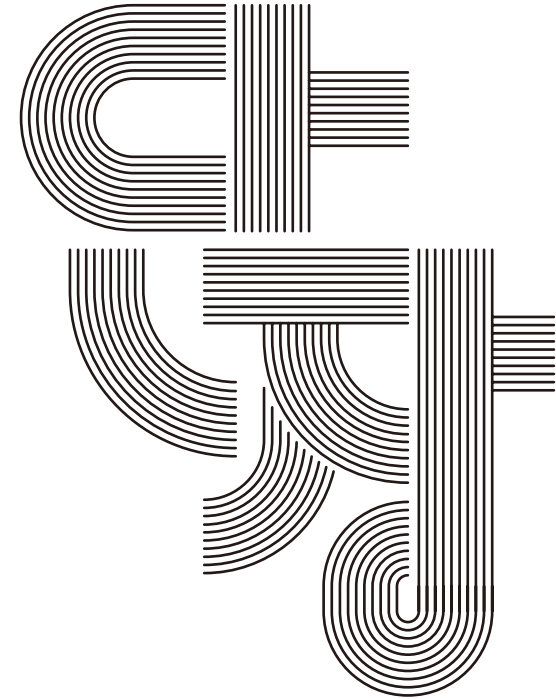
## 아티스트 소개

구이임은 구민지(정가), 이채현(건반·미디어 사운드), 임정완(가야금)으로 구성된 앙상블이다. 2020년, 동인의 성을 따서 결성되었다. 한데 모인 구씨, 이씨, 임씨는 새로운 소재와 감각으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스스로 음악을 짓고, 기성화 된 음악과 소리를 거부한다. 시어(詩語)의 내면을 살피 '노래적인 것'을 찾아가 하면, 현대인의 마음과 일상을 들여다보아 공감의 소리를 빛낸다. 이러한 음악 짓기와 음악 하기를 통해 일상의 언어는 설명과 묘사라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시적인 것으로, 그리고 '노래적인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평론가 송현민  
출연 구이임  
음향감독 김주현  
조명디자인 서가영  
무대디자인 김에스더  
무대감독 김성수  
무대크루 유완형, 윤진원  
담당PD 유예진 김혜경

## 2022 젊은국악



서울특별시와 제과전문그룹 크라운해태 간 체결된  
‘서울남산국악당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서울남산국악당의 청년국악 지원 사업으로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전통기반의 공연예술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남산국악당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만든 사람들

서울남산국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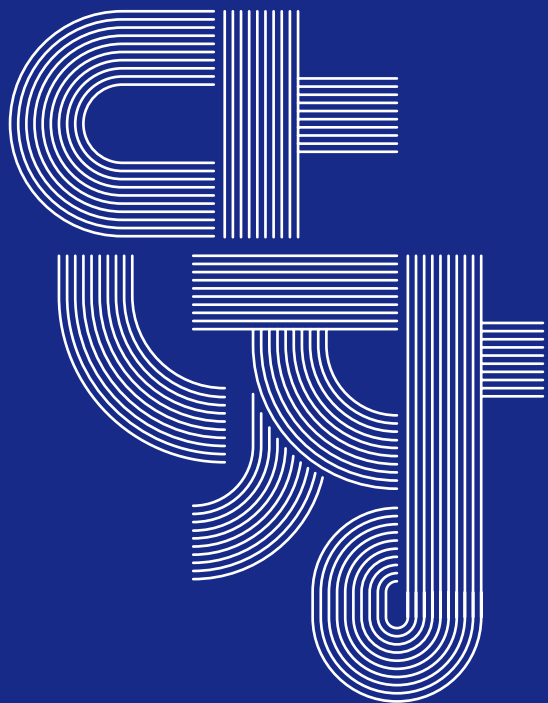
실장          엄국천  
기획홍보팀    이유정(팀장) 박예은 유예진 김혜경 서현재  
무대기술팀    김성수(팀장) 이성현 박영규  
운영지원팀    정현준(팀장) 이보라 천운비  
사진          나승열  
영상          최태연  
홍보물디자인   김보휘  
하우스매니저   김지연 소민지

주최           CROWN 호텔  
주관           서울남산국악당  
후원           CROWN 호텔

서울남산국악당은 2007년 전통공연예술의 진흥과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국악 전문 공연장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발굴 및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대와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22 젊은국악



저 높이, 더 멀리 날개짓하는, 단장!  
전통, 그 무한한 세계로 걸어가는, 단장!

연희\*무용\*음악계의 저명한 평론가들이 선정한  
동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아티스트들을 만나볼 수 있는  
'2022 젊은국악 단장'

2022년 10월, 전통예술의 미래를 그리는  
8인의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열정으로  
붉게 물든 무대를 선사합니다.

10. 19(수) 19:30 윤종강X김성현 이정동 정승하	10. 22(토) 19:30 장승현X김현선 이이슬 최종민	10. 26(수) 19:30 김희선X김철진	10. 29(토) 19:30 송현민X구이임
------------------------------------	------------------------------------	----------------------------	----------------------------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와 크라운해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